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우 립¹⁾ 최 지 영²⁾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在韓)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사회적 거리감이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 소재 3개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원에서 한국어 정규과정을 수강하는 10대~40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316명(남성 113명, 여성 203명)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회적 거리감,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 AMOS 2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은 한국어 자기효능감 및 한국어 학습전략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한국어 학습전략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한국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한국어 학습전략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거리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한국어 자기효능감이 한국어 학습전략을 거쳐 매개하는 이중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인지적·정서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요인인 사회적 거리감도 중요하다는 점과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감뿐만 아니라 한국어 자기효능감과 한국어 학습전략에 대한 교육적 개입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사회적 거리감,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 한국어 학업성취도

* 본 연구는 제1저자인 우립의 박사학위논문(2021)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2021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를 수정·확장한 것임.

1)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2) 교신저자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choi0122@hnu.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0년 국내 고등 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재한(在韓) 어학 연수생은 32,31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30,344명, 94.2%) 유럽(1,150명, 3.6%), 북아메리카(317명, 1.0%), 아프리카(264명, 0.8%), 남아메리카(213명, 0.7%), 오세아니아(27명, 0.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 등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21,380명으로 집계되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67,030명, 46.3%), 베트남(38,337명, 24.9%), 우즈베크(9,104명, 5.9%), 몽골(6,842명, 4.5%), 일본(3,174명, 2.1%), 미국(1,827명, 1.2%), 기타(27,381명, 17.8%)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어학 연수생들은 일정 기간 한국어를 학습한 후에 학부나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관심 있는 학문을 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학연수와는 달리 외국인 학생이 학부나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학습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한국어 시험 점수를 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서는 언어 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교육부(2019)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 업무 처리 요령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4년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 대학 입학 시에 TOPIK(한국어능력시험) 3급 점수를 제출하면 되고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하면 된다. 전문대학,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들은 입학 시에 TOPIK(한국어능력시험) 3급 점수를 제출하면 되고 졸업 기준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TOPIK 3급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한국 대학에서 학업을 유지해나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김지형, 2013)에 따르면, 현실적으로는 TOPIK 3급이나 4급 점수를 획득한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해도 한국 대학에서 한국어로 학업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알리미(2021) 외국 학생 중도탈락 현황(대학)에 따르면 2020년도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이 10%가 넘는 대학이 전국적으로 58곳에 달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높은 이유로는 대학생생활에 대한 부적응, 그중에서도 학업적 부적응을 꼽을 수 있다(전요한, 박지순, 2016).

여러 선행연구(공영태, 나성은, 2005; 김대현, 김아영, 강이화, 2007; 나임순, 2006)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적응과 가장 관련이 깊은 요인은 한국어 능력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유학생의 낮은 한국어 구사 능력은 한국 문화와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나임순, 2006), 유학생의 한국어와 성격특성은 유학생의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왔다(김대현 등, 2007). 또한, 유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인해 학교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학업성취도 저하, 다른 학우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재, 과제

수행과 발표 능력의 미숙과 같은 학업 문제를 보여주기도 한다(공영태, 나성은, 2005).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한국 생활 적응, 문화적응, 대학 생활 적응, 대학의 학업 적응의 정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한국에서 어학연수 중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고, 한국어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외국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지능, 성별, 연령과 같은 선천적 요인과 학습 동기, 학습전략, 학습 태도, 자기효능감과 같은 후천적 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인지적, 정의적,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어 능력에 대한 영향요인 중 사회·문화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자신의 모국과 한국 문화 사이에서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유학생들은 자신이 성장했던 모국을 떠나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타국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부조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이 모국에서 맺었던 사회적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 때 사회적 관계를 얼마나 잘 형성해나가느냐가 새로운 생활에 잘 적

응하고 정착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Rosenthal, Russell, & Thomson, 2007).

사회적 거리감은 학습자가 서로 다른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고(Acton, 1979), 한 개인이 접촉하는 두 문화의 인지적, 정의적 근접 정도를 의미한다(Brown, 1994).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해서 Schumann (1976)은 학습자가 두 문화 간의 사회적 거리가 멀다고 느낄수록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다고 보았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익숙한 문화권과는 다른 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하면서 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한국 문화를 가깝게 혹은 멀게 느끼는 것을 사회적 거리감이라고 할 수 있다(김지혜, 강승혜 2013).

이처럼 외국인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요인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 사회·문화적 요인이 해당 언어와 관련된 문화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언어학습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강승혜, 2005). 그러므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신의 문화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규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수행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김정은, 황순영, 2010; 조학래, 2014),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민지선, 김두섭, 2013; 양재영, 최명섭, 고진수, 2017; 채문희, 심혜인, 2019),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전영자, 전예화, 2010),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김희진, 2018),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김경화, 2011; 어홍선, 이종숙, 2018)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여러 연구(김지혜, 강승혜, 2013; 김현진, 김영주, 2014; 나은진, 2003; 오순영, 1990)에서 사회적 거리감과 학업성취도, 학습전략, 외국어 숙달도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한편, 학습자의 외국어 능력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있다(Multon, Brown, & Lent, 1991).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믿음으로서(Bandura, 1986), 학습자의 학습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에 대한 인지구조와 과정을 설명해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자신의 행위가 특정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관련 활동에 영향을 준다. 우선 학습자가 적절한 언어 학습 활동을 선택하도록 하고, 학습 활동을 지속하도록 한다. 학습자가 언어학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잘 극복해나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언어의 획득

과 습득행동을 표현하는 데 영향을 주고 정서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큰 영향을 주며, 학습효과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Schunk(1990)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에 비해 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랫동안 학습하며 수행 수준도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에 비해 공부를 덜하고 공부하는 동안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한 사람이 자신의 성취 가능성에 대해 갖는 신념을 의미하며, 이러한 신념은 그 사람의 행동, 특히 학습과 관련된 행동을 설명하고 예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김춘주, 강승혜, 2016; 손성희, 전나영, 2012)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이 있다.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및 팀 효과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춘주, 강승혜, 2016)에 따르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손성희, 전나영, 2012)에서도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학습전략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취하는 특별한 행동으로 전반적인 학업과정에 도움이 되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

여 사용하는 특별한 기술을 의미한다(Oxford, 1990). 그동안 수행된 학습전략과 언어 학업성취도 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습전략의 사용은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박찬규, 2010; 우림, 최지영, 2018; 이정애, 2013), 언어 학습전략을 연계시켜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나, 언어 학습전략을 연계시키지 못하고 단순히 사용하면 성취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박영예, 1999; 손성희, 2011; 조은형, 2012).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언어학습에서 학습전략의 사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는 학습자는 보다 능동적으로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하며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따라서 학습전략의 사용여부와 사용정도가 외국어 학습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학습자 내적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되어 왔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외국어 학습 관련 변인들 중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전략을 개별적으로 연구해왔고, 사회적 거리감과 외국어 학습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사회적 거리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전략 등 세 가지의 변인들이 외국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경로를 알아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 그리고 한국어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즉,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한국어 자기효능감과 한국어 학습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며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한국어 자기효능감과 한국어 학습전략의 이중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연구문제 1.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 학업성취도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은 사회적 거리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가깝지 않다고 느낀 학생이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황영은, 2018)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한국어 자기효능감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여 사회적 거리감이 한국어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설정하였다. 자기효능감과 한국어 학업성취도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손성희, 전나영, 2012), 한국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김춘주, 강승혜, 2016)를 토대로 한국어 자기효능감이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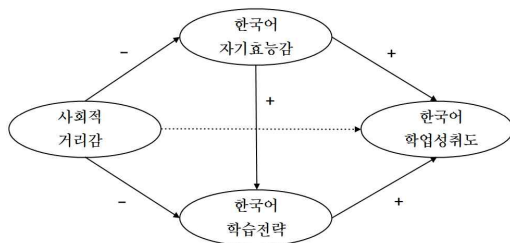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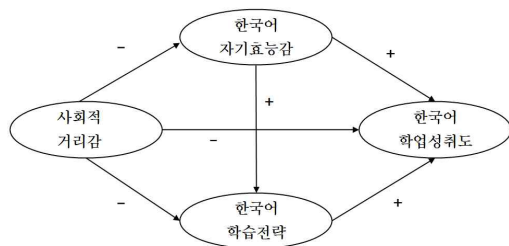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한편, 외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이 적을수록 읽기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감이 클수록 읽기 전략의 활용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된 선행연구(Liu, 2013)를 토대로 사회적 거리감이 학습전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목표어의 능력과 학습전략 사용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김미래, 서천수, 2007; 조정순, 조원희, 2004; 한승호, 2007)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전략이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또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전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된 선행연구(김성앙, 조규판, 2018),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모든 학습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송지영, 2017)를 바탕으로 한국어 자기효능감이 학습전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은 미국에 거주하는 스페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미국 문화에 가장 잘 적응한 피험자는 영어 습득 효과가 가장 낮았으며 미국 문화에 가장 적게 적응한 피험자는 오히려 습득에서 뛰어났다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Kelley, 1982)와 33세의 일본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연구참여자의 문화적응도가 높았지만 제2 언어 수준은 보통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선행연구(Schmidt, 1983)를 토대로 사회적 거리감이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로로 설정하였다. 한편 제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감의 하위요인인 상호태도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현진, 김영주, 2014), 사회적 거리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과 자국민과의 거리가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지혜, 강승혜, 2013)를 토대로 그림 2 경쟁모형을 설정하였고, 경쟁모형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이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

자이다. 재한(在韓) 외국인은 법제처(2022. 1. 25)에서 개정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한국에서 공부할 목적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3개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정규과정을 수강하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316명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남녀 한국어 학습자의 비율은 남성 학습자 113명(35.8%), 여성 학습자 203명(64.2%)이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의 학습자가 41명(13.0%), 20세 이상 30세 미만의 학습자가 252명(79.7%),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학습자가 20명(6.3%), 40세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가 3명(0.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강과목별 비율은 초급(1급, 2급) 57명(18.0%), 중급(3급, 4급) 148명(46.8%), 고급(5급, 6급) 111명(35.1%)이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학습자가 139명(44.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중국 학습자가 127명(40.2%)이었고, 러시아 외 32개 나라의 학습자가 총 50명(15.8%)이었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국어 비율은 베트남어 139명(44.0%), 중국어 127명(40.2%), 영어 7명(2.2%), 독일어 5명(1.6%), 러시아어 외 20개 언어 38명(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학습 기간별로는 1년 미만인 응답자가 104명(32.9%), 1~2년 사이가 156명(49.4%), 2~3년 사이가 16명(5.1%), 3~4년 사이가 17명(5.4%), 4년 이상은 23명(7.3%)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내용 검토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α 값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이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언어의 전문가를 통해 설문지를 번안하였으며,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설문지 등 총 5개 언어의 설문지를 준비하였다.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umann(1976)의 사회적 거리감 구성요소를 기초로 김현진과 김영주의 연구(2014)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이 연구의 대상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김현진, 김영주의 연구(2014)에서는 Schumann의 사회적 거리감 구성요소 중 희망 거주기간을 제외하고 지배유형, 통합전략, 폐쇄성, 응집성과 집단의 규모, 일치성, 상호태도 등 총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과정에서 신뢰도가 낮거나 신뢰도 분석이 불가능한 하위요인은 삭제하였다. 또한 내용적으로 예민한 지배유형 3개의 문항을 삭제하고,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의 구성요소에 4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4개의 하위요인은 지배유형, 일치성, 상호태도, 폐쇄성인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의 모든 하위요인을 역코딩을

하였기 때문에 지배유형을 ‘국가 간 비 동등성’으로, 일치성을 ‘이질감’으로, 상호태도를 ‘부정적 태도’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4개의 하위요인은 국가 간 비 동등성(예: ‘우리나라가 한국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폐쇄성(예: ‘나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하는 스터디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이질감(예: ‘우리나라의 문화와 한국 문화가 비슷하다’), 부정적 태도(예: ‘한국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친절하다고 생각한다’)이며 총 12개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국가 간 비 동등성이 .78, 폐쇄성이 .43, 이질감이 .62, 부정적 태도가 .68, 사회적 거리감의 전체 신뢰도는 .74로 나타났다.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자기효능감은 Wang(2004)의 QESE(The Questionnaire of English Self-Efficacy)를 기초로 Wang, Kim, Bong과 Ahn의 연구(2013)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듣기 효능감(예: ‘당신은 한국어로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가’) 8문항, 말하기 효능감(예: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다니는 학교를 한국어로 묘사할 수 있는가’) 8문항, 읽기 효능감(예: ‘한국어 읽기 내용을 포함한 숙제를 독립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가’) 8문항, 쓰기 효능감(예: ‘당신은 인터넷에서 한국어로 정보를 쓸 수 있는가’) 8문항으로 총 32문항이며,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6, 듣기 효능감 .89, 말하기 효능감 .89, 읽기 효능감 .85, 쓰기 효능감 .85로 나타났다.

한국어 학습전략

한국어 학습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Oxford(1990)의 SILL(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을 수정한 손성희(2011)의 학습전략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기억전략(예: ‘새로운 단어와 알고 있는 단어 간에 연상 관계를 만들어 본다’) 8문항, 인지전략(예: ‘새로운 단어를 서너 번 말하거나 써 본다’) 15문항, 보상전략(예: ‘한국어로 대화를 하던 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몸짓을 사용한다’) 6문항, 상위인지 전략(예: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많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9문항, 정의적 전략(예: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겁이 날 때마다 마음을 느긋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6문항, 사회적 전략(예: ‘한국어로 뭔가를 잘못 알아들으면 천천히 또는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7문항으로 총 51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5이며 기억전략 .79, 인지전략 .87, 보상전략 .72, 상위인지 전략 .90, 정의적 전략 .72, 사회적 전략 .83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한국어 학업성취도는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시험점수와 기말시험점수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인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의 총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한국어 학업성취도 점수는 네 부분의 점수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60점 미만, 60 ~ 69점, 70 ~ 79점, 80 ~ 89점, 90점 이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지각한 사회적 거리감이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이용하는 학습전략을 매개로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모형은 사회적 거리감,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 한국어 학업성취도의 총 4개의 잠재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설문지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앞 부분은 연구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기본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사회적 거리감,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 및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이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언어로 설문지를 번안하였으며,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설문지 등 총 5개 언어의 설문지를 준비하였다. 영어와 일본어 설문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한 번역회사를 통해 번역하였으며 베트남어 설문지는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최상급)을 취득하고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를 가진 베트남어 강사의 도움으로 완성하였다. 중국어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직접 번역하였으며 이후 중국과 한국의 두 문화와 언어에 모두 익숙한 이중 언어 사용자인 한국어 강사 1인이 중국어 설문지의 의미가 번역본에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중국어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교육학 전공 교수 1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한국어 어학기관 한 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 학생 약 4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에 대한 이해도, 소요시간, 문항 번역의 적절성 및 문항의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이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문항을 발견하였고, 이 문항들이 연구 문항으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지배유형 하위요인의 3문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어학연수 중인 학습자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은 문항을 수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은 없었고 설문 소요시간은 15 ~ 20분이었다.

본 연구의 최종 설문조사는 3개 대학교의 한국어 학습센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 대학교와 B 대학교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구 주제, 척도 내용, 주의사항과 소요시간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학생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C 대학교의 경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자가 담당 강사에게 연구주제, 척도 내용, 주의사항과 소요시간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한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사전승인을 받았다(IRB No. 20-03-03-1030).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한국어 자기효능감과 한국어 학습전략이 매개하는지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 절차인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이 연구의 4가지 잠재변수들이 각각 측정변수를 제대로 나타내는지 평가하였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이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해주는지를 확인하였다. 셋째,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총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팬텀변수(phantom variable)설정을 통해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18.0,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사회적 거리감,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 학업성취도 간의 직접적인 관계의 검증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인 사회적 거리감,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 한국어 학업성취도와 그에 해당하는 측정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χ^2 검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없지만($\chi^2 = 431.64$, $p < .001$), CMIN/DF 값이 3.35이고, 사례 수와 모형의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TLI = .91 CFI = .92, RMSEA = .09(90% 신뢰구간: .08 ~ .10)로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측정변수들의 잠재변수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고자 요인부하량과 비표준화 계수 부분의 C.R. 값을 살펴보았다. 표 2와 같이 모든 측정변수의 C.R. 값이 3.30 이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노경섭, 2020).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면 그림 3과 같이 각 잠재변수에 대해 모든 측정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인 요인부하량이 .31 ~ .93으로 나타나, 요인부하량의 충족조건이 .3 이상이어야 함을 고려해 볼 때(Cohen, 1988)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에 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는 것은 잠재변수들 간의 이론적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구조모형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모형 검증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표 1.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chi^2/df/p$	CMIN/DF	TLI	CFI	RMSEA	RMSEA(90)	
					LO	HI
431.64/129/.000	3.35	.91	.92	.09	.08	.10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B	S.E.	β	C.R.
사회적 거리감	국가 간 비 동등성	1.00	-	.31***	-
	폐쇄성	1.35	.35	.42***	3.86
	이질감	1.05	.28	.41***	3.81
	부정적 태도	1.80	.44	.76***	4.10
한국어 자기효능감	듣기 효능감	1.00	-	.88***	-
	읽기 효능감	.97	.04	.90***	23.44
	쓰기 효능감	1.04	.04	.93***	25.09
	말하기 효능감	1.03	.04	.91***	23.90
한국어 학습전략	기억전략	1.00	-	.70***	-
	인지전략	1.16	.08	.87***	13.95
	보상전략	.97	.09	.66***	10.82
	상위인지 전략	1.12	.09	.73***	12.03
	정의적 전략	.93	.09	.63***	10.36
	사회적 전략	1.20	.10	.77***	12.58
한국어 학업성취도	듣기 성취도	1.00	-	.91***	-
	읽기 성취도	1.06	.04	.89***	24.24
	쓰기 성취도	.98	.04	.88***	23.62
	말하기 성취도	1.04	.04	.93***	27.46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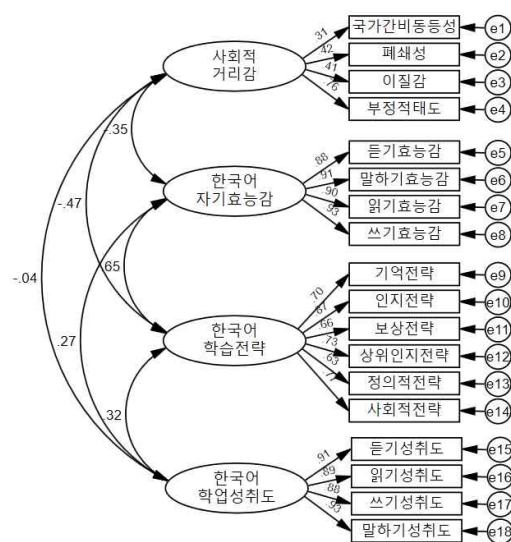


그림 3. 측정모형

CMIN/DF 값이 3.34이고, TLI = .91, CFI = .92, RMSEA = .09로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두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따라서 더 간명한 연구모형(그림 4)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와 분석결과는 표 4, 그림 5와 같다.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 한국어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거리감은 한국어 자기효능감($\beta = -.34$, $p < .001$)과 한국어 학습전략($\beta = -.28$, $p <$

표 3.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모형	$\chi^2/df/p$	CMIN/DF	TLI	CFI	RMSEA	RMSEA(90)	
						LO	HI
연구모형	434.78/130/.000	3.34	.91	.92	.09	.08	.10
경쟁모형	431.64/129/.000	3.35	.91	.92	.09	.08	.10
Δ	3.14 ($df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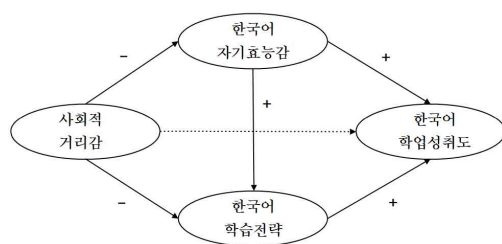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모형

.001)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어 자기효능감은 한국어 학습전략($\beta = .56, p < .001$)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어 학업성취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한국어 학습전략은 한국어 학업성취도($\beta = .24, p < .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에서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한국어 자기효능감 및 한국어 학습전략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팬텀 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감은 한국어 자기효능감 및 한국어 학습전략을 매개로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5, p < .001$). 개별 매개효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거리감 $\rightarrow$ 한국어 자기효능감의 매개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거리감 $\rightarrow$ 한국어 학습전략의 매개 경로는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다($B = -.13, p < .01$). 셋

표 4.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및 중다상관제곱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R^2
한국어 자기효능감	사회적 거리감	-.38	.09	-.34***	.12
한국어 학습전략	사회적 거리감	-.24	.07	-.28***	.50
	한국어 자기효능감	.43	.05	.56***	
한국어 학업성취도	한국어 자기효능감	.19	.14	.11	.10
	한국어 학습전략	.55	.19	.24**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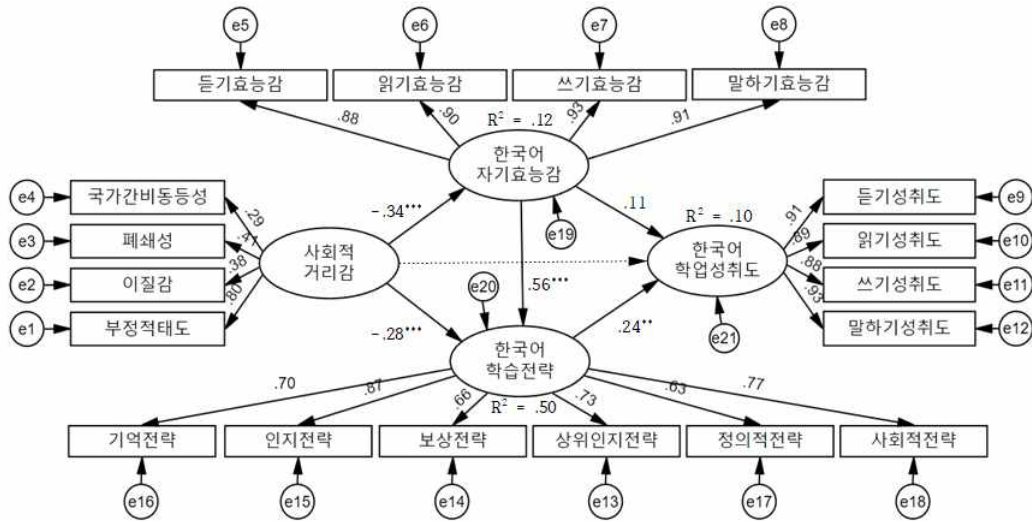


그림 5. 연구모형의 표준화 회귀계수

표 5.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종속변수	매개변수	독립변수	매개효과					
			개별			전체		
			B	S.E.	β	B	S.E.	β
한국어 학업성취도	한국어 자기효능감	사회적 거리감	-.07	.07	-.04			
	한국어 학습전략		-.13**	.06	-.07			
	한국어 학습전략 ←		-.09**	.07	-.05	-.30***	.10	-.15***
	한국어 자기효능감							

** $p < .01$. *** $p < .001$.

제, 사회적 거리감 → 한국어 자기효능감 → 한국어 학습전략의 경로는 유의한 매개 경로로 나타났다($B = -.09$,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어 자기효능감과 한국어 학습전략, 한국어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감이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은 한국어 자기효능감 및 한국어 학습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은 한국어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한외국인 학습자가 자국의 문화, 경제, 기술 등이 한국보다 너무 우세하거나 종속된다고 지각하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구성원들과 함께 여가 활동이나 취미생활, 종교 활동, 학교생활 등을 함께 하는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을 것이고, 한국어를 잘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거리감을 크게 느낄수록 한국어 자기효능감이 떨어지며, 사회적 거리감을 적게 느낄수록 한국어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거리감이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황영은, 2018)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둘째,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은 학습 전략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거리감을 크게 느낄수록 한국어 학습전략을 덜 활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자국과 한국의 경제, 문화, 기술 등이 동등하지 않다고 지각하고,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지 않고 한국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는데 필요한 학습전략을 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연구자인 Liu의 연구(2013)에서도 사회적 거리감을 적게 느낄수록 외국인 중국어 학습자가 읽기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 거리감을 크게 느낄수록 읽기 전략을 덜 활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이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전략이 직·간접적으로 재한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자기효능감은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자기효능감은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한국어 듣기 성취도, 읽기 성취도, 쓰기 성취도, 말하기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권혜경, 조운경, 2020; 김지영, 2017; 이해영, 박지연, 2017)과는 다른 결과이다. 앞에 언급한 선행연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한국어 기능별 성취도와의 관계를 밝혔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자기효능감은 한국어 듣기 성취도, 읽기 성취도, 쓰기 성취도, 말하기 성취도를 포함한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중 64.8%의 학습자는 초·중급이며 본 연구의 한국어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문항의 특성이 학습자 자신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가까운 측면이 있어서 연구대상자들의 반응이 그들의 한국어 자기효능감의 실제와 일치된 반응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어 학습전략은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 학습전략과 한국어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

들의 결과(강승혜, 1999; 손성희, 2012)와 일치하였다. 즉, 학습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학습전략의 사용 여부와 학습전략의 사용 정도가 한국어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내적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과 달리, 한국어 학습전략은 학습과 연습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의 초급(1급, 2급) 단계에서부터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학습전략을 안내하고 연습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한국어 자기효능감 및 한국어 학습전략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한국어 자기효능감 및 한국어 학습전략이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이 클수록 한국어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떨어지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전략을 덜 활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 대한 한국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로서,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선행연구(권성연, 2015; 송지영, 최문홍, 2017; 홍영주, 2011; 홍원준, 최재성, 2021)

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한국어를 잘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과 더불어 그 믿음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적인 학습전략이 적절하게 결합될 때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본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이 다른 선행연구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한국어 자기효능감과 한국어 학습전략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 대한 학습전략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거리감이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학습전략의 활용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이 한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줄 때 한국어 학습전략을 거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습전략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 결과(김성양, 조규판, 2018; 김윤희, 2015; 여태철, 임효진, 황매향, 2017; 조한익, 2013; 홍민지, 2015)와 일관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한국어 자기효능감이 한국어 학습전략을 거쳐 매개하는 이중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한외

국민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이 한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줄 때 한국어 자기효능감을 거쳐 한국어 학습전략을 매개하여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한국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볼 때,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에 한국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한국어 자기효능감이 한국어를 잘 습득하는 데 필요한 학습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될 때 한국어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이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한국어 자기효능감과 한국어 학습전략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사회적 거리감을 단순히 사회·문화적 개념으로뿐만 아니라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 탐색이나 체험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들처럼 어학 연수생의 경우는 한국어 수업시간에 한국어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제외하면 다른 한국 학생들과의 만남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각 대학교 어학

기관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사회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한국어 학습전략을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해당 학문 영역에서 성취를 맞보고 성공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할 때 향상된다. 따라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도 단계별 한국어 학습과정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수법 등을 통해 학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과 한국어 교사교육 과정에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전략은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과 달리, 한국어 학습전략은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의 초급 단계에서부터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학습 전략을 안내하고 연습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과 한국어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구미어계를 제 2 외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들에 대한 Schumann(1976)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거리감

이론이 한국어 학습에도 적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에 진출하는 유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국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와 달리 자신의 문화권과는 다른 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사회·문화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 국내에서 사회·문화적 요인인 사회적 거리감을 활용한 연구들은 주로 장애인, 다문화가족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반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학습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요인인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 한국어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교육장면에서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을 고려하여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 국내의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학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특정한 언어권, 즉 영어권,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 위주로 진행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재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국적은 다양하고, 국적에 따라 학습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 35개 나라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보다 전면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점과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모형은 사회적 거리감,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 한국어 학업성취도 총 4개의 잠재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설문지 내용은 연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연구 대상자가 지각한 사회적 거리감,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 및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들이 설문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설문지까지 준비하였는데 다만, 설문 내용의 양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끝까지 집중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최종 설문조사는 3개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원에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3개의 한국어 교육원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수업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각 대학 한국어 교육원의 시험내용, 난이도의 차이를 고려하면 각 대학 한국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있는 35개 나라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 및 한국어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의 국적은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나, 베트남과 중국 국적의 한국어 학습자가 전체 연구대상의 84.2%를 차지함으로써 특정 국가

및 문화권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 또한 출신 언어권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는 데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Schumann(1976)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원래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개발시기도 오래되었다. 다양한 문화권의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자 및 각 문화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타당성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즉 국가 간 비동등성, 폐쇄성, 이질감, 부정적 태도이다. 그중 국가 간 비동등성은 제 2 언어학습자 집단이 목표어 화자 집단보다 정치, 문화, 경제, 기술적으로 우세한지, 종속되어 있는지, 동등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질감은 양 집단 간 문화의 유사성과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Schumann(1976)에 따르면, 제 2 언어학습자 집단이 목표어 화자 집단보다 우세하다고 느끼면 언어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배우려 하지 않고, 열등하거나 종속되어 있다고 느끼면 두 집단 사이에 사회적 거리감이 생겨 목표어 학습을 거부하게 되고, 동등하다고 느끼면 두 집단 간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목표어 습득을 강화시킨다. 또한, 언어학습자와 목표어 집단의 문화가 일치하거나 유사하면 두 집단 사이의 사회적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목표어 학습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각 국가는 역사, 정치

제도, 정부 형태, 지리적 위치, 종교적 신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 간에는 경제·정치·문화 방면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일차적인 목적은 한국어 언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 목표어 문화권과 일치되게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의 하위요인인 국가 간 비 동등성 및 이질감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와 검토가 필요하며 현대 사회에 더욱 적합한 사회적 거리감 도구의 개발도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35개국 316명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감 및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 한국어 학업성취도의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 국가의 특징이나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지역별, 나라별, 언어권별로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자기효능감, 한국어 학습전략,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재한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로는 학습자의 사회·문화적인 배경과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언어권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면담 등의 질적 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언어권과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한 한국어 학습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의 또 다른 개인적 변인인 학습 기간, 수강과목 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학습자 변인이 한국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더욱 풍부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일반화시키기에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포함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혜 (1999).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학습 전략과 학습결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3(1), 89-115.
- 강승혜 (2005). 학습자 요인 측면에서 본 한국어 학습자 분석: 학습자 상담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7), 1-20.
- 공영태, 나성은 (2005).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예비교육에 관한 고찰. *일본학보*, 62, 267-282.
- 교육부. (2019. 4. 30).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50&lev=0&statusYN=W&s=moe&m=0309&opType=N&boardSeq=77521>에서 2020년 3월 3일 인출
- 권성연 (2015). 사회적 실재감과 학습성과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정교화전략, 비판적 사고전략의 매개효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 1-27.
- 권혜경, 조윤경 (2020). 한국어 쓰기 수업에서 학습자 동기 요인 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21(2), 185-210.
<https://doi.org/10.15818/ihss.2020.21.2.185>
- 김경화 (201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호감도 및 사회적 거리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3), 83-97.
- 김대현, 김아영, 강이화 (2007).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학업적응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연구. *아시아교육연구*, 8(3), 159-187.
- 김미래, 서천수 (2007). 외국어 학습전략 사용과 영어 학업성취도의 관계. *영어교육연구*, 19(1), 135-159.
- 김성양, 조규판 (2018). 여고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1), 455-472.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11.455>
- 김윤희 (2015). 대학생의 ADHD 증상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5(2), 247-267.
- 김정은, 황순영 (2010). 장애대학생이 지각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통합교육연구*, 5(2) 1-18.
- 김지영 (2017). 한국어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언어 기능별 성취도와의 상관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형 (2013).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체계와 내용. *영주어문*, 25, 75-106.
- 김지혜, 강승혜 (2013). 영어권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과 한국어 학업성

- 취도와외의 관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8, 105-131.
- 김춘주, 강승혜 (2016).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와 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스캐폴딩의 지식 공유 활동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7(2), 1-23.
<https://doi.org/10.18209/iakle.2016.27.2.1>
- 김현진, 김영주 (2014).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전략과 사회적 거리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응용언어학, 30(2), 127-154.
- 김희진 (201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유라시아연구, 15(2), 17-42.
<https://doi.org/10.31203/aepa.2018.15.2.002>
- 나은진 (2003). 중학생들의 영어 숙달도와 동기 및 사회적 거리와의 상관관계. 영어교육연구, 15(3), 223-251.
- 나임순 (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2), 169-197.
- 노경섭 (2020). 제대로 알고 있는 논문 통계분석. 서울: 한빛아카데미.
- 대학알리미. (2021).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index.do>에서 2022년 2월 24일 인출
- 민지선, 김두섭 (2013).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4), 71-94.
- 박영예 (1999). 대학생들의 학습전략, 학습 스타일, 학습자 변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영어교육, 54(4), 281-308.
- 박찬규 (2010). 언어 학습전략 사용의 변화와 학업성취도. 언어학연구, 18(1), 23-47.
<https://doi.org/10.17002/sil.18.201012.23>
- 법제처. (2022. 1. 25).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제18793호. <https://www.law.go.kr/법령/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2022년 2월 24일 인출
- 손성희 (2011).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학습전략분석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성희 (2012).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학습전략 사용에 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7, 167-193.
- 손성희, 전나영 (2012).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권에 따른 귀인성향, 자기효능감, 학교적응 분석 연구. 언어와 문화, 8(3), 173-192.
- 송지영 (2017). 자기효능감에 따른 읽기전략의 사용양상분석. 인문사회 21, 8(4), 73-85.
<https://doi.org/10.22143/HSS21.8.4.5>
- 송지영, 최문홍 (2017). 영어 학습동기와 성취도 간 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 현대영미어문학, 35(3), 203-229.
<https://doi.org/10.21084/jmball.2017.08.35.3.203>
- 양재영, 최명섭, 고진수 (2017).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지역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주택연구, 25(4), 159-180.
<https://doi.org/10.24957/hsr.2017.25.4.159>
- 어홍선, 이종숙 (2018). 일반가정 청소년들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 및 다문화효능감의 관계.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29(1), 181-199.
<https://doi.org/10.22589/kaocm.2018.29.181>
- 여태철, 임효진, 황매향 (2017). 중학생의 자기통제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학습된 무기력과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 23(1), 315-341.
<https://doi.org/10.24159/joec.2017.23.1.315>
- 오순영 (1990). 한국 EFL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감과 학습성취도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 립, 최지영 (2018). 한국어 전공 중국학생의 학습동기와 학습전략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79.
- 이경애 (2013). 결혼이민자의 학습양식과 한국어 학습전략 분석 연구. 열린교육연구, 22(2), 187-209.
- 이해영, 박지연 (2017). 한국어 듣기 이해와 듣기 효능감, 듣기전략, 듣기 불안, 듣기 노출 시간의 상관성: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28(3), 85-104.
- 전영자, 전예화 (2010).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1), 1-13.
- 전요한, 박지순 (2016).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17.
- 조은형 (2012). 한국 전문대학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학습전략 분석과 학습인지 양식에 따른 영어 수업선호도 연구. 외국어교육연구논집, 26(2), 139-166.
- 조정순, 조원희 (2004).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학습전략 훈련의 효과.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4), 207-232.
- 조학래 (201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복음과 실천, 53(1), 389-418.
- 조한익 (2013). 정서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과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교육, 22(1), 313-324.
- 채문희, 심혜인 (201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5(2) 141-156.
<https://doi.org/10.25277/KCPR.2019.15.2.141>
- 한국교육개발원(KEDI). (2020. 12. 7).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50&boardSeq=8291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에서 2020년 12월 21일 인출
- 한승호 (2007). 한국 대학생의 영어 학습전략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민지 (2015). 상호작용 중심 교수법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영주 (2011).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초등학생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와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원준, 최재성 (2021). 재직자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에서 성취목표가 학업성취도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4(2), 15-24.
<https://doi.org/10.32431/kace.2021.24.2.002>
- 황영은 (2018). 사회적 거리가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ton, W. R. (1979). *Perception of lexical annotation: Professed attitude and socio-cultural distance in*

- second language learn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Brown, H. D. (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3r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Kelley, J. P. (1982). *Interlanguage variation and social/psychological influences within a developmental stage* (Doctoral dissertation). UCLA TESL Program.
- Liu, Y. Y. (2013). *The effect of social distance to Chinese reading strategies of foreign learners* (Master dissertation). ShangHai Normal University.
- Multon, K. D., Brown, S. D., & Lent, R. W. (1991). Relation of self-efficacy beliefs to academic outcomes: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30-38.
<https://doi.org/10.1037/0022-0167.38.1.30>
- Oxford, R.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New York: Newbury House.
- Rosenthal, D. A., Russell, J., & Thomson, G. (2007). Social connectednes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at an Australian univers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84(1), 71-82.
<https://doi.org/10.1007/s11205-006-9075-1>
- Schmidt, R. (1983). Interaction, acculturation, and the acquisition of communicative competence: A case study of an adult. *Sociolinguistics and Language Acquisition*, 137-174.
- Schumann, J. H. (1976). Social distance as a factor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26(1), 135-143.
<https://doi.org/10.1111/j.1467-1770.1976.tb00265.x>
- Schunk, D. H. (1990). Goal setting and self-efficacy during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5(1), 71-86.
https://doi.org/10.1207/s15326985ep2501_6
- Wang, C. (2004).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nd self-efficacy beliefs of children learn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 Wang, C., Kim, D. H., Bong, M., & Ahn, H. S. (2013). Examining measurement properties of an English self-efficacy scale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9, 24-34.
<https://doi.org/10.1016/j.ijer.2013.02.004>

1 차원고접수 : 2022. 01. 07.

수정원고접수 : 2022. 02. 15.

최종게재결정 : 2022. 03. 23.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Distancing, Korean Self-Efficacy, Korean Learning Strategy, and Korean Academic Achievement among Foreign Korean Learners Residing in South Korea

Yu, Lin

Choi, Jiyoung

Dept.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The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distancing, Korean self-efficacy, Korean learning strategy, and Korean academic achievement among foreign Korean learners residing in South Korea. The questionnaire has been prepared to collect data effectively on social distancing, Korean self-efficacy, Korean learning strategy, and Korean academic achievement, which has been used to survey 316 foreign Korean learners who are taking Korean language courses in Language Educational Centers at three universities in Daejeon, South Korea.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18 and AMOS 23.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distancing had a negative direct effect on Korean self-efficacy and Korean learning strategy. Second, Korean self-efficacy did not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Korean academic achievement. However, Korean learning strategy had a significant direct positive effect on Korean academic achievement. Third, Korean self-efficacy did not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distance and Korean academic achievement. However, Korean learning strategy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istancing and Korean academic achievement,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Korean self-efficacy through Korean learning strateg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uggests that in order to improve Korean academic achievement of foreign learne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intervention programs in Korean self-efficacy and Korean learning strategy as well as social distancing.

Keywords: foreign Korean learners, social distance, Korean self-efficacy, Korean learning strategy, Korean academic achievement